

한국의 삼복 일자 분석
ANALYSIS OF SAMBOK IN KOREA

민병희^{1,2}, 이기원³, 안영숙¹, 안상현¹, 이용삼²

¹한국천문연구원, ²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³대구가톨릭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BYEONG-HEE MIHN^{1,2}, KI-WON LEE³, YOUNG SOOK AHN¹, SANG-HYEON AHN¹, AND YONG SAM LEE²

¹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Daejeon 305-348, Korea

²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361-763, Korea

³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712-702, Korea

E-mail: bhmin@kasi.re.kr

(Received November 19, 2013; Accepted December 13, 2013)

ABSTRACT

Sambok (三伏, Three Hottest Days) is the common designation of *Chobok* (初伏, Early Hot Day), *Jungbok* (中伏, Middle Hot Day), and *Malbok* (末伏, Late Hot Day), and widely known to be one of the Korean folk customs. Hence, *Sambok* is notated in *Manseryeok* (Ten Thousand-Year Almanac) and in the annual astronomical almanac published by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changes of *Sambok* in Korea based on various documents such as *Joseonwangjosilok* (朝鮮王朝實錄,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eungbo-Jakryeoksik* (增補作曆式, The Supplement of Manual for Calendar Making), astronomical almanacs, and so forth. According to *Jeungbo-Jakryeoksik* preserved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Chobok* and *Jungbok* are defined as the third and fourth *Gyeongil* (庚日, The Day Starting with the Seventh Heavenly Stems in Sexagenary Cycles Assigned to Each Day) after the summer solstice, respectively, and *Malbok* is the first *Gyeongil* after *Ipchu* (Enthronement of Autumn). However, if the summer solstice is *Gyeongil*, then the third *Gyeongil* counting from the solstice becomes *Chobok*. *Malbok* depends on the time of *Ipchu*. *Ipchu* itself becomes *Malbok* if the time of *Ipchu* is in the morning, or next *Gyeongil* becomes *Malbok* if it is the afternoon. On the other hand, *Malbok* is defined as *Ipchu* itself regardless of its time according to *Chiljeongbobeob* (七政步法, Calculating Method for Sun, Moon, and Five Planets), *Chubocheobryeo* (推步捷例, Quick Examples for Calendrical Calculations), and so on. To verify the methods used to determine *Sambok*, we examined the record in the extant almanacs during the period of 1392 to 2100 for which the summer solstice or *Ipchu* is *Gyeongil*. As a result, we found a periodicity that if the time of *Ipchu* is in the morning, in general, the time is in the afternoon after two years and then is back into in the morning after nineteen years, i.e., the 2 + 19 years periodicity. However, we found the 2 + 17 years periodicity in some years. We also found that the *Chobok* method of *Jeungbo-Jakryeoksik* has been used since 1712, the thirty-eighth reign of King *Sukjong* (肅宗). In addition, we supposed that *Malbok* had been determined by the method like *Chubocheobryeo* since either 1846, the twelfth reign of King *Heonjong* (憲宗), or 1867, the fourth reign of King *Gojong* (高宗). At present, these methods of *Sambok* are customarily used without any legal basis. We, therefore, think that this study will help conventionalize the method defining *Sambok* in the future.

Key words: *Sambok* (三伏): *Chobok* (初伏), *Jungbok* (中伏), *Malbok* (末伏); *seasonal subdivisions* (節氣): *summer solstice*, *Ipchu* (立秋); *sexagenary cycles*: *Gyeongil* (庚日)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음식을 먹는 세시풍습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삼복의 기원에 대한 가장 초기의 기록은 사마천(BCE 145? - 86?)의 『사기(史記)』로 알려져 있다(Lee, 1985). 기록에 의하면 ‘진덕공(秦德公, BCE 709 - 676) 2년(679년)에 처음으로 복사(伏祠)를 짓고 사문(四門)에서 개를 찢어 죽여 충재(蟲災)을 막았다’¹라고 하여 액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기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고려나 조선의 관청에서는 삼복에 더위를 피하는 조치가 있었다. 『고려사(高麗史)』 관리급가(官吏給暇)에는 ‘삼복에는 관리에게 3일의 휴가를 준다’²라는 기록이 있고, 문종 31년(1077년)에는 ‘삼복 안에 공사를 금하게 하였다’³라는 금령(禁令)이 있었다(Choi, 2003).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삼복 기간 동안에 공역(公役)을 금지하거나⁴ 임금의 경연(經筵), 세자의 서연(書筵)을 미루기도 하였다.⁵ 1886년(고종 28년)에는 내무부에서 육영공원(育英公院)이라는 신학교를 설립하였는데, 학칙에는 방학의 시기를 ‘초복부터 말복까지 무더위 때’로 한다⁶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월력요항, 역사(만세력) 뿐만 아니라 민간 달력에도 삼복이 표기되어 있다.

1896년 태양력으로 개편되기 이전 조선에서는 태음태양력의 역서를 간행하였다. 이 역서는 매일의 역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일과력(日課曆)이라고 하는데(Kim, 2002), 조선전기는 대통력을, 후기는 시헌력을 사용하였다. 이 역서들에는 합삭, 상현, 하현 등과 더불어 관습적 기념일의 일종인 절일(節日)들이 두주(頭註)⁷로 표기

되어 있다. 이 절일들은 명절(名節)과 구분하여 오늘날 잡절(雜節)이라고 부른다(Lee, 1985). 조선시대에는 이사(二社), 한식(寒食), 삼복, 납(臘), 토왕용사(土王用事)의 다섯 가지 대표적인 절일이 있었으며, 조선말에는 한식을 정월대보름, 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하였다.⁸

잡절은 특정 절기를 기점으로 수 일 간격이나 일진(日辰, 일자에 붙이는 간지)을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해당하는 날로 정해진다. 현재 삼복의 경우 하지(夏至)로부터 세 번째 경일(庚日)⁹이 초복이고, 네 번째 경일이 중복이며, 입추(立秋)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 말복이다. 초복과 중복은 10일 간격이나 중복과 말복은 10일 또는 20일 간격이며, 이 간격이 10일이면 평복(平伏), 20일이면 월복(越伏)이라고 한다(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2011). 삼복은 삼경(三庚), 경복(庚伏) 등이라고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잡절 중 하나인 삼복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조선시대 삼복 결정방법과 관련된 문헌 내용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당시 역서 자료와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입추가 경일이 되는 해의 주기와 삼복의 결정방법에 따른 말복의 월복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 실록에 기록된 삼복 기사

2.1. 『세조실록』

삼복 결정법과 관련된 사서 기록은 『세조실록』 세조 3년(1457년) 3월 22일 기사에서 처음 접할 수 있다.

서운관에서 아뢰기를, “지금 정축년의 당력(唐曆)과 향력(鄉曆)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력은 7월 19일이 말복이고, ... 향력은 7월 9일이 말복이 되고, ... 서로 어긋난 것이 이와 같은 까닭에 다시 『역요책(曆要冊)』을 상고해보니, 이르기를, ‘입추 후 일경이 말복이 된다’고 했으니, 만약 입추일이 제1 경일이면 입추일로서 말복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금년 7월 9일 경오(庚午) 자정(子正) 1각(刻)이 입추인 까닭에 이 날로써 말복으로 정해야 된다. ...”하니, 예조에 명하여 참고해서 아뢰도록 하였다.¹⁰

(玆)망(望)과 함께 절일(節日)을 기입한다.

8 『고종실록』 권23, 고종23년(병술, 1886년) 8월 1일(신유).

9 일진에서 경(庚)자 들어간 날로 경오(庚午), 경진(庚辰), 경인(庚寅), 경자(庚子), 경술(庚戌), 경신(庚申)일이 있다.

10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정축, 1457년) 3월 22일(을유). 書雲觀啓 “今詳丁丑年唐曆及鄉曆, 唐則七月十九日爲未伏, ... 鄉曆則七月九日爲未伏, ... 相違如此, 故更考『曆要冊』云, ‘立秋後

1 『사기(史記)』 권28, 秦德公二年 初作伏祠 磔狗四門以御蟲災.

2 『고려사』 권84 지38, 형법 공식(公式) 관리급가.

3 『고려사』 권85 지39, 형법 금령(禁令).

4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정유, 1417년) 윤5월 12일(정묘), 『세조실록』 권8, 세조 2년(경자, 1420년) 5월 16일(계미).

5 『단종실록』 권14, 단종 3년(을해, 1455년) 윤6월 5일(기유), 『중종실록』 권3, 중종 2년(정묘, 1507년) 5월 28일(경오),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신사, 1521년) 6월 5일(을유),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신사, 1521년) 6월 10일(경인),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임오, 1522년) 6월 2일(정축),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임오, 1522년) 6월 9일(갑신), 『중종실록』 권50, 중종 19년(갑신, 1524년) 5월 29일(계사), 『중종실록』 권62, 중종 23년(무자, 1528년) 7월 14일(계미), 등.

6 『고종실록』 권23, 고종23년(병술, 1886년) 8월 1일(신유).

7 조선시대 역서는 월력장(月曆張), 연신방위도(年神方位圖), 매월의 일과장(日課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Lee et al., 2011). 역서의 일과장에는 각 월의 일자, 일진, 오행, 12직(直)을 적고 그 아래 역주(曆註), 그 위에는 두주(頭註)를 적는다. 이 두주에 삭(朔)·현

Table 1. Summary of the literature related to 『*Jakryeoksik*』 in the late Joseon dynasty

Literature	Holdings ¹ /Printed type	Contents	Remark
『 <i>Jeungbo-Jakryeoksik</i> 』 (增補作曆式)』	Kyujanggak /woodbl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lendar making (作曆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ambiguous publication year; 庚寅仲冬 增補開刊
『 <i>Jeungbo-Jakryeoksik</i> 』 (增補作曆式)』	National Library /manuscri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lendar making (作曆式) astronomical phenomena of sun, moon, and five planets (七曜段目) 	<ul style="list-style-type: none"> epilogue by Yoon, Du Su (尹斗壽) in 1593 title : 『<i>Jakryeoksik</i> (with the addition of astronomical phenomena of sun, moon, and five planets)』
『 <i>Jakryeoksik</i> 』 (作曆式)』	Kyujanggak /manuscri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lendar making (作曆式) solar and lunar eclipses (日月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notation written around 1848
『 <i>Chiljeongbobeob</i> 』 (七政步法)』	Kyujanggak /manuscri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lendrical methods for sun, moon, and five planets (七政推算) astronomical phenomena of sun, moon, and five planets (七曜段目) calendar making (作曆式) solar and lunar eclipses (日月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title : 『<i>Chubocheobryeo</i>』 annotation written around 1848
『 <i>Chubocheobryeo</i> 』 (推步捷例)』	Kyujanggak /wooden type	<p>[vol.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lendrical methods for sun, moon, and five planets (七政推算) astronomical phenomena of sun, moon, and five planets(七曜段目) <p>[vol.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lendar making (作曆式) lunar eclipse (月食) solar eclipse (日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blished by Royal Astronomical Office (觀象監) in 1861 preface by Nam, Byeong Gil annotation written around 1848

¹ Kyujanggak: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National L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이 4월 18일 기록에는 예조에서 상고(相考)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당력(唐曆)과 향력(鄉曆)의 서로 틀린 곳을 음양학 제조와 더불어 여러 글을 참고했더니 말하기를, ... 경(庚)이란 것은 금기(金氣)이니, 그날은 하지 후의 제 3 경일이 초복이 되고, 제4 경일이 중복이 되고, 입추후의 초경일이 말복이 되는 것이다. ‘입추일이 경일(庚日)이면 입추일이 말복이다’라는 말은 없는데, 지금 서운관에서는 『역요(책)』에 의거하여 입추일 경일로써 말복을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요(책)』은 곧 서운관이 전해 받은 사사로운 기록으로 틀린 것이 많이 있기에, 일찍이 교지를 내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서운관에서는 이에 의거하여 참고하여 결정하였으니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지만,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으므로, 우선 내버려두고 논죄하지 말도록 하였다. ... 청컨대 ... 복일(伏日)은 당력에 의거하여 19일로써 정하여 중외(中外)에 반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¹¹

一庚爲末伏.’ 若立秋日庚, 則以立秋日爲末伏. 今年七月九日庚午子正一刻立秋, 故以是日定爲末伏. ...” 命禮曹參考以聞.

¹¹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정축, 1457년) 4월 18일(신해). 禮曹啓: “唐曆及鄉曆相違處, 與陰陽學提調參考諸書云, ... 庚者金也, 其日夏至後第三庚爲初伏, 第四庚爲中伏, 立秋後初庚爲末伏. 無‘立秋日庚則以立秋日爲末伏’之語, 今書雲觀依曆要, 以立秋日庚爲末伏. 然曆要乃書雲觀傳授私記, 多有舛錯, 曾下旨勿用, 而書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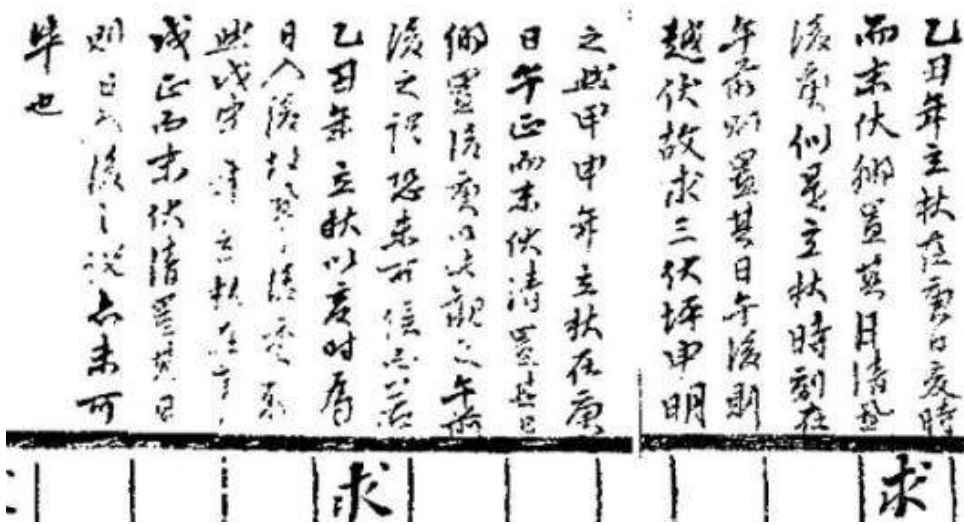


Figure 1. A part of 『Jeungbo-Jakryeoksik』 showing the headnote (fifteen columns in the margin) for *Sambok* (Three Hottest Days) (Courtes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세조 3년(1457년)의 위 두 기사에서 ‘하지 후의 제3 경일이 초복이 되고, 제4 경일이 중복이 되고, 입추 후의 초경일이 말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삼복결정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입추가 경일이었고, 이러한 경우 말복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다. 논의 끝에 중국의 달력을 따라 입추가 경일이면 다음 경일을 말복으로 정하였다.

2.2. 『영조실록』

이와 유사한 논쟁이 조선 후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실록』 영조 21년(1745년) 1월 18일 기록에 말복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상감 관원을 그 관청으로 하여금 단죄하게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역서(曆書)의 말복(末伏)이 청력(淸曆)과 서로 틀렸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게 되었다(命觀象監官員, 令攸司科治, 時曆書末伏, 與淸曆相左, 故有是命).¹²

같은 날의 『승정원일기』에는 ‘탑전하교(榻前下敎, 임금의 즉석에서 명령한 것)라고 인용하면서 당시의 정황을 기술하고 있다.

정석오(鄭錫五)가 이르기를 “올해 역서를

觀據以參定, 可以治罪, 事在赦前, 姑置勿論. ... 請 ... 伏則依唐曆以十九日爲定, 頒行中外.” 從之.

¹² 『영조실록』 권61, 영조 21년(을축, 1745년) 1월 18일(경인).

청력과 비교해보니, 말복이 청력은 7월 20일이 고, 향력은 7월 10일입니다. 중대한 복일이 이와 같은 차이가 나니, 담당관원을 그 관청으로 하여금 단죄하게 청하였습니다. ... 삼복에는 치러야할 일이 많으니, 한결같이 청력에 의거해 20일로써 거행하십시오.”¹³

『승정원일기』에는 1745년 말복도 청의 역서와 같이 입추가 경일이면 다음 경일을 말복으로 하여 7월 20일로 정했음을 알 수 있다.

3. 『작력식(作曆式)』에 기록된 삼복 기사

사서의 기록 이외에도 각종 역일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작력식』이 있다. 『작력식』의 앞부분에는 삼복을 구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에 남아 있는 『작력식』은 Table 1과 같이 5가지가 조사되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증보작력식(增補作曆式)』(古7300-25), 『작력식(作曆式)』(奎12506), 『칠정보법(七政步法)』(奎12618) 「작력식」과 『추보첩례(推步捷例)』(古7300-8-v.1-2) 「작력식」이 있다[이후 순서대로 (규)증보작력식, (규)작력식, (칠)작력식, (추)작력식으로 칭함].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증보작력식(增補作曆式)』(古734-3) [이후 (도)증보작력식]이 있다.

특히 (규)증보작력식은 ‘경인년 11월(庚寅仲冬)’이라

¹³ 『승정원일기』 982책, 영조 21년 1월 18일(경인).

鄭錫五曰, 今年曆書, 與淸曆考准, 則末伏, 淸曆, 七月二十日, 鄉曆, 七月初十日. 莫重伏日, 如是相差, 當該官, 請令攸司科罪矣. ... 而三伏, 多有舉行之事, 一依淸曆, 以二十日舉行. 當該官, 自本監雖已汰去, ...

고 증보된 일자가 기록되어 있고, (도)증보작력식은 윤두수(1533년 - 1601년)의 발문이 있다.

위 5가지 『작력식』에 삼복의 기록은 본문과 할주(割註)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복날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할주는 복날의 음양오행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다만 (규)작력식, (칠)작력식, (추)작력식에는 할주에 ‘도광무신(道光戊申)’의 기사가 추가되어 있다.

3.1. (규)증보작력식

(규)증보작력식에는 삼복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괄호안의 내용은 할주이다).

하지 후 제3 경일이 초복, 제4 경일이 중복이며, 입추 후 제1 경일이 말복이다. 하지일이 경일이면 하지로부터 3 경(庚)의 수가 초복이다. 입추일이 경일이고 (입절시각이) 오전에 들면 그날이 말복이고, (입절시각이) 오후에 들면 다음 경일[次庚]이 말복이다. <사계절의 대사는 상생에 의한 것이나, 여름과 가을에 이르러서는 서로 상극(相克)으로 전해진다. 그러므로 경금(庚金)이 화(火)를 두려워하여 잠복하는 것이 도리이다>.¹⁴

(규)증보작력식의 삼복을 구하는 방법은 『세조실록』에 기록된 방법과 비교해 볼만하다. 『세조실록』에서는 입추가 경일이면(이후 ‘입추경일’) 다음 경일이 말복이었다. 그러나 『(규)증보작력식』에서는 입추경일을 다시 나누어 입절시각이 오전인 경우(이후 ‘오전경일’)는 입추를 말복, 입절시각이 오후인 경우(이후 ‘오후경일’)는 입추 다음 경일을 말복으로 하였다.

할주에는 ① ‘여름과 가을에 이르러서는 서로 상극으로 전해진다’와 ② ‘경금(庚金)이 화(火)를 두려워하여 잠복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오행은 각각 목, 화, 금, 수인데, 여름과 가을은 ‘화극금(火克金)’이라는 상극의 관계를 가진다. 또한 천간(天干)에서 경(庚)은 양(陽)이자 금(金)이므로, 경일(庚日)에 몸을 사리고 더위를 피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2. (도)증보작력식

(도)증보작력식의 삼복에 대한 계산법과 할주는 (규)증보작력식의 것과 일치한다. (규)증보작력식이 활자본인

데 비해 (도)증보작력식은 필사본인 것이 차이가 있다. 추가적으로 (도)증보작력식에는 삼복을 구하는 방법(求三伏) 위에 주석이 달려있다. 이를 두주라고 하는데, 이 두주에는 을축년(1745년), 갑신년(1764년), 무신년(1848년) 말복에 대해 논하고 있다.

가. 을축년(1745년)

을축년 입추가 경일 해시(亥時)인데, 말복으로 향력은 그날에 두었는데, 청력(淸曆)은 다음 경일[後庚]로 하였다. 입추 시각이 오전이면 그 날에 두고, 오후면 월복한다. 그러므로 삼복을 구하는 방법은 평복(입추 = 말복)이지만, 분명히 월복으로 했다.¹⁵

나. 갑신년(1764년)

갑신년 입추가 경일 오정에 있어 청력은 말복을 그 날에 두고, 향력은 이후 경일[後庚]에 두었다. (청이)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오전은 오후의 오기이라 생각되는데, (청의 것은) 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다.¹⁶

다. 무신년(1848년)

을축년(1745년) 입추와 같이, 해시(亥時)를 일몰 후로 삼았기 때문에 다음 경일[後庚]에 두어야 했으나 월복하지 않았다. 무신년 입추가 경일 술정(戌正)에 있어 말복인데, 청은 그 날에 두었으니, 곧 일입후의 것을 잘못한 것이니 가히 따를 수 없다.¹⁷

위 두주에서 영조 21년, 을축년(1745년)의 경우는 2.2절의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내용과 맞닿아 있다. 을축년(1745년) 역서(향력)에서는 입추 경일이므로 그 날을 말복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평복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조선에서도 청력(중국력)에 따라 말복을 월복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규)증보작력식 [또는 (도)증보작력식]의 ‘말복 결정법’과 일치한다.

그리고 영조 40년, 갑신년(1764년)의 경우, 청력은 입추를 말복으로 하는데, 이는 입절시각이 오후인 것을 오전으로 오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자 백중력(壬子 百中曆)¹⁸』에 의하면, 당시 입절시각은 오정2각이며(시태양시로 12시 30분 - 45분 사이), 1773년 중국

¹⁴ 求三伏：夏至後第三庚爲初伏，第四庚爲中伏。立秋後第一庚爲末伏。夏至日值庚，則自夏至爲三庚之數。立秋日值庚，時在午前，則其日爲末伏，時在午後，則次庚爲末伏。<四時之代謝，以其相生，而至於夏秋，傳相克。故庚金有畏火，潛伏之義>.

¹⁵ 乙丑年，立秋在庚日亥時，而未伏。鄉置其日。淸曆後庚似是。立秋時刻在午前，則置其日，午後，則越伏。故求三伏坪，申明之越。 여기서 ‘故求三伏坪，申明之越.’의 번역이 완전하지 못하다.

¹⁶ 甲申年，立秋在庚日午正，而未伏，淸置其日，鄉置後庚。以此記之，午前後的誤，恐未可信也。

¹⁷ 若乙丑年立秋，以亥時爲日入後，故置之後庚，不越。戊申年，立秋在庚日戌正，而未伏。淸置其日，則日入後之訛，亦未可準也。

역서와 같은 해 조선시대 역서의 입절시각을 비교해보면 정확히 42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입추 시각이 오후(오정2각)이지만 당시 중국은 오전일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현종 14년, 무신년(1848년, 도광 28년)의 경우, 조선과 청의 말복이 서로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입추경일이 오후경일로서 조선의 역서는 입추 다음 경일을 말복으로 하였는데, 청이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입추 당일을 말복으로 하였다. 즉, 입추경일이면서 오후경일이었음에도 말복을 입추 다음의 경일로 하지 않은 것이다.

3.3. (규)작력식, (칠)작력식, (추)작력식

(규)작력식, (칠)작력식, (추)작력식에도 『(규)증보작력식』에 기록된 삼복에 대한 내용은 (규)증보작력식, (도)증보작력식과 거의 같으나 할주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다.

‘도광 무신년(1848년)에 입추가 경일이고 그 시각이 술정(戌正)이나 청은 그날에 말복을 두고, 우리는 다음 경일에 말복을 두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 입추가 경일이면 시각이 오전·오후에 무관하게 그날이 말복이다.’¹⁹

(규)작력식, (칠)작력식과 (추)작력식의 도광 무신년은 (도)증보작력식의 두주에서 언급되었던 무신년과 같다. 현종 14년 무신년(1848년)이후부터는 입추경일의 경우 입절시각이 오전, 오후에 무관하게 입추를 말복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조 3년(1457년)에 조선에서는 『역요책』을 따라 입추경일이면 그날을 말복으로 하였다가 당시 중국력과 달라 변경했었다(2.1절 참조). 무신년(1848)의 말복 결정법의 변경내용은 이보다 약 400년 전인 세조 3년(1457년) 당시의 『역요책』에 따라 처음 입추경일에 정했던 말복 결정법으로 회귀한 것이었다.

3.4. 삼복 결정법의 변천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대에 삼복을 정하는 기본 원칙은 초복은 하지 후 제3 경일, 중복은 제4 경일

이며, 말복은 입추 후 제1 경일이다. 위 원칙에 따르면 대부분의 삼복을 결정할 수 있지만, 하지가 입추가 경일인 경우에는 복날을 정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 하지가 경일인 날(이후 ‘하지경일’)이나 입추경일은 삼복 결정법에 있어서 경계조건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앞 절에서 기술한 입추경일에 대한 기록만으로 말복 결정법의 변천사만 정리할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본 연구에서는 입추경일에서 ‘경(庚)일의 수’는 입추 당일은 1 경일의 수로, 그 다음 경일은 2 경일의 수라고 표현한다. 하지경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 세조 3년(1457년)²⁰: 입추경일이면 다음 경일이 말복이다.
(해석) ‘입추 후’ 제1 경일을 말복이라고 하였을 때, ‘입추 후’는 입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입추경일인 경우에도 입추를 경일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입추 후 제1 경일은 입추 다음 경일(입추로부터 2 경일의 수)을 의미한다.
- 영조 21년(1745년, 을축): 입추가 오전경일이면 그날이 말복이고, 오후경일이면 다음 경일이 말복이다.
(해석) 입추가 오전경일이면 그 날(입추로부터 1 경일의 수)이 말복이고, 오후경일이면 다음 경일(입추로부터 2 경일의 수)이 말복이다.
- 현종 14년(1848년, 무신): 입추 경일이면 그날이 말복이다.
(해석) 입추경일이면 그 날(입추로부터 1 경일의 수)이 말복이다.

하지경일에서의 초복 결정법의 변천 과정은 입추경일의 말복 결정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규)증보작력식 이전시기: ‘하지경일이면 하지로부터 4 경일의 수가 초복이다’로 추정할 수 있다.
(추정) 세조 3년(1457년)의 입추경일의 사례처럼, ‘하지 후’는 하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하지경일인 경우, 하지를 포함하지 않고, 제3 경일이 초복이고, 하지로부터 4 경일의 수에 해당한다.

¹⁸ 임자 백중력(壬子 百中曆)은 강희 32년(1693년) 계유(癸酉)년부터 건륭 57년(1792년) 임자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백중력은 과거 100년, 천세력(千歲曆)은 미래 100년의 율력자료를 편집한 것이므로(Hu, 2000), 본 연구에서는 기준년을 앞에 써서 백중력이나 천세력의 판본을 구분하였다.

¹⁹ 道光戊申 立秋值庚 時刻在戌正 而清置末伏於其日 鄉置末伏於次庚 以爲相左. 故自今以後 立秋值庚則 時刻勿拘午前午後 其日置末伏.

²⁰ 칠정산내편의 간행 시기는 세종 26년(1444년)이다. 1444년 이후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입추경일의 해가 1457년이다.

Table 2. The dates of *Haji* (Summer Solstice) and *Chobok* (Early Hot Day) in case that the former is the day starting with the seventh Heavenly Stem in *Iljin*¹.

Year	<i>Haji</i>			<i>Chobok</i>		Ref. ⁵
	Date ²	<i>Iljin</i> ¹	Time ³	Date ²	O.N. ⁴	
1399	V 10	17	07:00			L
1401	V 2	27	18:44			L
1420	V 3	7	09:15			L
1422	V 24	17	20:58			L
1441	V 25	57	11:29			L
1443	V 16	7	23:00			L
1460	V 25	37	02:00			L
1462	V 16	47	13:44			L
1481	V 16	27	04:15			L
1483	V 9	37	15:58			L
1502	V 9	17	06:29			L
1504	V 1	27	18:00			L
1523	V 1	7	08:44			L
1525	V 22	17	20:15			L
1544	V 23	57	11:00			L
1546	V 15	7	22:29			L
1563	V 23	37	01:29			L
1565	V 15	47	13:00			L
1584	V 15	27	03:44			L
1586	V 6	37	15:15			L
1605	V 7	17	06:00	VI 07	4	L,H
1607	V 28	27	17:29	V* 29	4	L,J
1626	V 29	7	08:15			L
1628	V 20	17	19:44			L
1647	V 20	57	10:15	VI 21	4	L,P3
1649	V 12	7	22:00			L
1668	V 13	47	12:29	VI 13	4	L,P1
1670	V 5	57	16:15	VI 5	4	P1
1689	V 5	37	06:15	VI 5	4	G,P1
1691	V 25	47	18:00	VI 26	4	P1
1710	V 26	27	07:45	VI 26	4	P1
1712	V 18	37	19:15	VI 8	3	P1
1731	V 18	17	09:15	VI 9	3	S,P2
1733	V 10	27	21:00	VI 1	3	K,S
1750	V 19	57	00:15	VI 9	3	P2
1752	V 10	7	12:00	VI 1	3	C
1754	V 2	17	23:30	V 22	3	P2
1771	V 10	47	02:00	VI 1	3	J
1773	V 2	57	13:45	V 22	3	C
1792	V 3	37	04:00	V 23	3	G
1794	V 24	47	15:30	VI 15	3	G
1813	V 24	27	05:45	VI 15	3	G
1815	V 16	37	17:30	VI 6	3	G
1834	V 16	17	07:45	VI 6	3	G

Year	<i>Haji</i>			<i>Chobok</i>		Ref. ⁵
	Date ²	<i>Iljin</i> ¹	Time ³	Date ²	O.N. ⁴	
1836	V 8	27	19:30	V 28	3	G
1855	V 9	7	09:30	V 29	3	G
1857	V 30	17	21:00	V* 20	3	C
1876	V 30	57	11:15	V* 20	3	C
1878	V 21	7	23:00	VI 12	3	C
1895	V 30	37	01:30	V* 20	3	C
1897	V 22	47	13:15	VI 12	3	C
1916	Jun. 22	27	03:24	Jul. 12	3	M
1918	Jun. 22	37	15:00	Jul. 12	3	M
1937	Jun. 22	17	05:12	Jul. 12	3	M
1939	Jun. 22	27	16:40	Jul. 12	3	M
1958	Jun. 22	7	06:27	Jul. 12	3	C
1960	Jun. 21	17	18:13	Jul. 11	3	C
1979	Jun. 22	57	08:56	Jul. 12	3	C
1981	Jun. 21	7	20:45	Jul. 11	3	C
2000	Jun. 21	47	10:48	Jul. 11	3	M
2002	Jun. 21	57	22:24	Jul. 11	3	M
2019	Jun. 22	27	00:54	Jul. 12	3	M
2021	Jun. 21	37	12:32	Jul. 11	3	M
2023	Jun. 21	47	23:58	Jul. 11	3	M
2040	Jun. 21	17	02:45	Jul. 11	3	M
2042	Jun. 21	27	14:14	Jul. 11	3	M
2061	Jun. 21	7	04:31	Jul. 11	3	M
2063	Jun. 21	17	16:00	Jul. 11	3	M
2082	Jun. 21	57	06:02	Jul. 11	3	M
2084	Jun. 20	7	17:39	Jul. 10	3	M

¹ Sexagenary cycle assigned to each day. The cycle is the combination of ten Heavenly Stems and twelve Earth Branches. In the table, we express *Iljin* using Arabic numbers (refer to Appendix B of Lee et al., 2012).

² Date in the luni-solar calendar before the year 1911; Its month is expressed a roman number. The symbol “*” represents the lunar leap month (intercalary month).

³ Time by *Datongli* (or *Chiljeongsannaepyeon*) for the years 1392 ~ 1653 and 1667 ~ 1669 and by *Shixianli* for the years 1654 ~ 1667 and 1670 ~ 1910 (refer to Lee et al., 2011).

⁴ Ordinal number of the day starting with the seventh Heavenly Stem counting from the summer solstice. The number 1 represents the summer solstice itself.

⁵ L: see the Lee et al. (2009), H: Korean Ment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1994), J: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http://www.koreastudy.or.kr>), P1, P2 and P3: private collections, G: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C: Korean Astronomical Almanac Database (refer to Lee et al., 2011), M: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2004), K: Keimyung University, S: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the Joseon Dynasty(承政院日記)』

- (규)증보작력식 적용시기: 하지경일이면 하지로부터 3 경일의 수가 초복이 될 수 있다.
(해석) 하지경일인 경우에 ‘하지 후’의 의미가 하지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입추경일의 경우 입추시각이 오전 또는 오후에 따라 ‘입추 후’의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추정한 하지경일인 경우의 초복 결정법은 당시의 역서자료를 통해 그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4. 삼복의 변천과정 검증

삼복의 변천에 대한 문헌 기록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Lee et al.(2009)의 대통령법 연구 결과자료, 한국천문연구원 역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Lee et al., 2011), 1910년에서 2100년까지의 『만세력』 자료(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2004), 그리고 국내에 산재하는 역서 자료를 이용하여 하지와 입추가 경일인 해를 조사하였다. 특히 조선에서 대통령 사용기간(1392년 - 1653년, 1667년 - 1669년)에 대해서는 Lee et al.(2009)의 연구결과, 시헌력 사용기간은 『임신(1752년) 백중력』, 『임자(1792년) 백중력』, 『임술(1802년) 백중력』, 1910년 이후는 『만세력』 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였다.

4.1. 초복의 변천

Table 2에는 1392년부터 2100년까지 기간 중에서 하지가 경일인 해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2에서 1910년 이전의 모든 날짜는 태음태양력(줄여서 ‘음력’)이고 이후에는 그레고리력(이후 ‘양력’)으로 나타내었다(굵은선으로 구분). 음력에서 윤달은 그 월에 *로 나타내었다. 또한 표에서 당시 초복일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자, 경일의 수(庚 수), 출처 등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1649년과 1668년 사이에는 이중선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에서 시헌력으로 전환(1654년)되는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1667년부터 1669년까지 3년 동안 시헌력 대신에 대통령으로 회귀하여 시행하였다. 따라서 Table 2에서 1668년은 대통령 역서이므로 1668년과 1670년 사이에도 이중선을 표시하였다.

Table 2에서 숙종 36년(1710년)까지는 초복이 하지로부터 경일의 수가 4이다. 3.4절에서 추론했던 ‘하지경일의 초복은 하지를 뺀 다음의 3째 경일(하지로부터 4 경일 수)’로 ‘하지 후 제3 경일’을 해석한 것과 잘 일치한다. 반면 숙종 38년(1712년)부터는 하지경일의 초복은 하지로부터 3 경일의 수를 적용하고, 이는 (규)증보작력

식 [또는 (도)증보작력식]의 ‘삼복 구하는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Table 2에서 하지경일이 발생하는 주기는 원년(기준년)에 대해서 2년 + 19년이 계속 반복되는 ‘(2 + 19)의 쌍주기’를 보임을 알 수 있다(‘쌍주기’에 대해서는 부록 A1 참조). 일례로, 하지경일의 해인 1605년의 2년 후인 1607년과 1607년의 19년 후인 1626년도 하지가 경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76년, 1878년, 1895년의 경우처럼 (2 + 17)의 쌍주기가 나타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연도에 표시된 네모 윤곽선(실선)은 (2 + 17)의 쌍주기를 나타낸 것(마지막 17년에 해당하는 연도에 표시)이고, 1895년 이외에도 (2 + 17)의 쌍주기는 1460년, 1563년, 1771년, 2019년, 그리고 2040년에 있다. 1750년-1752년-1754년과 2019년-2021년-2023년에는 하지경일이 2년 주기로 연이어 2회 발생하는 특이한 사례도 나타난다[네모 윤곽선(점선)으로 표시].

4.2. 말복의 변천

Table 3에는 1392년부터 2100년까지 기간 중에서 입추가 경일인 해를 정리한 것이다. 4.1절과 마찬가지로 Table 3에서 1910년 이전의 모든 날짜는 음력이고 이후에는 양력으로 나타내었다(굵은선으로 구분). 표에서 당시 말복일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자, 경일의 수(庚 수), 출처 등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1646년과 1659년 사이에는 이중선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에서 시헌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며, 대통령 재시행 기간인 1667년 - 1669년에는 입추경일이 없었다.

초복과 달리, 말복은 한국천문연구원 역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백중력』 자료를 활용하였다. 『백중력』은 간행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100년의 월력(月曆)을 기록한 것으로 10년 단위로 간행하였다(Hu, 2000). 『백중력』은 매월의 절기의 절기일자와 입절시각을 수록하였는데, 입추는 7월 절기이므로 『백중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5월의 중기인 하지는 『백중력』에 기록되지 않는다.

Table 3에서 시대별 입추경일인 해의 말복 결정법의 변화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세조실록』에서처럼 세조 3년(1457년)에 입추경일은 입추로부터 2 경일 수를 말복으로 한 이래로 18세기 초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3에 따르면, 『영조실록』 영조 21년(1745년)이나 (국)증보작력식의 을축년(1745년) 두주(頭註)의 내용은 실제로는 경종 2년(1722년)과 경종 4년(1724년)이래 발생했던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책력의 자료만 고려해 보았을 때, 경종 2년(1722년)부터 입추가 경일일 때 오전경일이면 그 날(입추로부터 1 경일의 수)이 말복이고, 오후경일이면 다

Table 3. The dates of *Ipchu* (Enthronement of Autumn) and *Malbok* (Late Hot Day) in case that the former is the day starting with the seventh Heavenly Stem in *Iljin*¹.

Year	<i>Ipchu</i>			<i>Malbok</i>		Ref. ³
	Date ¹	<i>Iljin</i> ¹	Time ¹	Date ¹	O.N. ²	
1396	VI 24	47	05:15			L
1398	VI 16	57	17:00			L
1417	VI 16	37	07:29			L
1419	VII 7	47	19:00			L
1438	VII 8	27	09:44			L
1440	VI 30	37	21:15			L
[1457]	VII 9	7	00:15	(K) VII 9 (C) VII 19	1 2	L,A L,A
[1459]	VII 1	17	12:00			L
[1461]	VI 21	27	23:29			L
[1478]	VII 1	57	02:29			L
1480	VI 21	7	14:15			L
1499	VI 22	47	04:44			L
1501	VII 14	57	16:15			L
1520	VII 14	37	07:00			L
1522	VII 6	47	18:29			L
1541	VII 6	27	09:15			L
1543	VI 27	37	20:44			L,B
1562	VI 28	17	11:29			L,B
1564	VI 20	27	23:00			L,B
[1581]	VI 28	57	02:00			L,B
1583	VI 20	7	13:29			L,B
1602	VI 20	47	04:15			L,B
1604	VII 11	57	15:44			L,B
1623	VII 12	37	06:29			L,B
1625	VII 4	47	18:00			L,B
1644	VII 5	27	08:44	VII 15	2	L,P3
1646	VI 25	37	20:15	VII 6	2	L,P3
1659	VI 21	47	05:15	VII 1	2	C
1661	VII 13	57	17:00	VII 23	2	C
1680	VII 13	37	07:15	VII 23	2	P1
1682	VII 5	47	18:45	VII 15	2	P1
1701	VII 5	27	09:00	VII 15	2	P1
1703	VI 26	37	20:45	VII 6	2	P1
1722	VI 27	17	10:30	VI 27	[1]	B,P2
1724	VI 19	27	22:15	VI 29	[2]	G
1743	VI 19	7	10:45	VI 19	[1]	B
1745	VII 10	17	22:15	(K) VII 10 (C) VII 20	1 [2]	B,P2 B,S
[1762]	VI 19	47	01:00	VI 19	[1]	B,K
1764	VII 10	57	12:30	VII 20	[2]	B

Year	<i>Ipchu</i>			<i>Malbok</i>		Ref. ³
	Date ¹	<i>Iljin</i> ¹	Time ¹	Date ¹	O.N. ²	
1783	VII 11	37	03:00	VII 11	[1]	B,G
1785	VII 3	47	14:30	VII 13	[2]	G
1804	VII 4	27	04:45	VII 4	[1]	G
1806	VI 24	37	16:30	VII 5	[2]	C,G
1825	VI 24	17	06:45	VI 24	[1]	G
1827	VI 16	27	18:15	VI 26	[2]	C,G
1846	VI 17	7	08:30	VI 17	[1]	C,G
1848	VII 9	17	20:15	(K) VII 19 (C) VII 9	[2] 1	C,G
1867	VII 9	57	10:30	VII 9	1	C,G
1869	VI 30	7	22:00	VI 30	1	C,G
[1886]	VII 9	37	00:45	VII 9	1	C,G
1888	VI 30	47	12:15	VI 30	1	C,G
1907	VII 1	27	02:30	VII 1	1	C,G
1909	VII 23	37	14:21	VII 23	1	C
1928	Aug. 8	57	04:28	Aug. 8	1	M
1930	Aug. 8	27	15:57	Aug. 8	1	M
1949	Aug. 8	7	06:15	Aug. 8	1	C
1951	Aug. 8	57	17:37	Aug. 8	1	C
1970	Aug. 8	57	07:54	Aug. 8	1	C
1972	Aug. 7	7	19:29	Aug. 7	1	C
1991	Aug. 8	47	09:37	Aug. 8	1	C
1993	Aug. 7	57	21:18	Aug. 7	1	C
2012	Aug. 7	37	11:30	Aug. 7	1	M
2014	Aug. 7	47	23:02	Aug. 7	1	M
[2031]	Aug. 8	17	01:42	Aug. 8	1	M
2033	Aug. 7	27	13:14	Aug. 7	1	M
2052	Aug. 7	7	03:32	Aug. 7	1	M
2054	Aug. 7	17	15:05	Aug. 7	1	M
2073	Aug. 7	57	05:19	Aug. 7	1	M
2075	Aug. 7	7	17:07	Aug. 7	1	M
2094	Aug. 7	47	07:10	Aug. 7	1	M
2096	Aug. 6	57	18:52	Aug. 6	1	M

¹ See footnotes in Table 2.

² Ordinal number of the day starting with the seventh Heavenly Stem counting from *Ipchu*. The number 1 represents *Ipchu* itself. The symbols 'K' and 'C' represent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³ A: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B: 『*Baekjungryeok*』 (One Hundred-year Almanac). For the rest, see footnotes in Table 2.

음 경일(입추로부터 2 경일의 수)이 말복이 되었다. 1745년의 시헌서 역면(曆面) 상에서는 7월 10일(1 경일의 수)이 말복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2.2절의 『영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당시 말복을 7월 20일로 변경하여 입추로부터 2 경일의 수에서 지냈음이 분명해 보인다.

입추가 오전경일과 오후경일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하던 말복은 현종 14년, 도광(道光) 무신년(1848년)에 변경된다. Table 3의 ‘경일(庚日)의 수(O.N.)’는 1848년 역서의 역면(曆面)에 기록된 것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규)작력식등에는 ‘지금 이후부터... (自今以後...)’라고 했으므로 1848년 당시부터 말복을 7월 9일(1경일의 수)로 시행했을 수 있다. 따라서 ‘오전경일이나 오후경일에 관계없이 입추가 경일이면 그 날을 말복으로 한다’는 방법은 현종 12년(1846년)부터이거나 늦어도 고종 4년(1867년)부터 적용되었다.

Table 3의 입추가 경일인 해도 4.1절 Table 2처럼 대체로 ‘(2 + 19)의 쌍주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2 + 17) 쌍주기도 나타나는데, 마지막 17년에 해당하는 연도인 1457년, 1478년, 1581년, 1762년, 1886년, 2031년에 네모 윤곽선(실선)으로 표시하였다. 1457년-1459년-1461년에는 입추경일이 2년 주기로 연이어 2회 발생하는 특이한 사례이다.

1646년과 1659년은 13년 차이인데, 대통력에서 시헌력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24기를 결정함에 있어 대통력은 평기법을, 시헌력은 정기법을 사용하였다. 평기법이 회기년을 단순히 24등분하여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비해, 정기법은 평기법으로 구한 24기에 보정값을 가감해 천체의 실제 위치를 반영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시헌력 개력 전후로 입추가 경일인 해가 드는 시점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평기법에서 정기법으로 전환될 때 두 방법 간의 절일이나 입절시각 차이는 분점과 지점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 이분이지(二分二至)를 벗어날수록 차이가 커진다.

5. 토의

5.1. 간행연대

『작력식』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도)증보작력식에는 그 마지막 페이지에 <역식발(曆式跋)>이라는 비교적 짧은 발문이 있다.

이 역식(曆式)을 보면 가히 끝까지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방법 그대로 하면 비록 100세가 지나더라도 가히 (책력 만드는 법을) 알 수 있다. 계사년 8월 정미일 해평 윤두수²¹

윤두수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계에 재기 용되어 선조를 곁에서 모시면서[扈從]²², 어영대장²³, 우의정(선조 25년 5월 1일)²⁴을 거쳐 좌의정²⁵에까지 올랐다. <역식발>의 ‘계사년 8월 정미일 해평 윤두수’의 문구로부터, 계사년은 선조 26년(1593년), 8월 정미일은 26일(Han, 2001; Ahn et al., 2009)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발문으로 보아 1593년 8월에 간행된 『역식(曆式)』이라는 저본(底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지 않는 이 책이 『작력식』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이 『역식』은 전쟁 중에 긴급히 역서를 만들거나 그 만드는 법을 보존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도)증보작력식이 1593년 당시의 『역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필사본인 이 책의 필체가 발문의 필체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본문에 있는 두주(頭註)에는 1800년대의 기록이 덧붙여 있어 1593년의 기록으로 단정할 수 없다(Figure 1 참조).

3.4절의 말복 결정법에 대한 변천 과정으로부터 (규)증보작력식의 간행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규)증보작력식은 최소 「역식발(曆式跋)」이 쓰였던 1593년 8월 이후에 간행되었고, (도)증보작력식의 삼복 관련 두주에 언급된 을축년(1745년) 후부터 무신년(1848년) 전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이다. (규)증보작력식의 마지막장에 있는 ‘경인년 11월에 증보판을 처음으로 간행하였다(庚寅仲冬 增補開刊).’라는 기록에서 경인년은 영조 46년(1770년)이나 순조 30년(1830년)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Table 2에서 숙종 38년(1712년)부터 초복 결정법이, Table 3에서 경종 2년(1722년)의 말복 결정법이 (규)증보작력식과 일치한다. 따라서 (규)증보작력식이 간행된 경인년이 영조 46년(1770년)도 가능하다.

(규)증보작력식의 간행시기가 (도)증보작력식의 필사 시기보다 빠른 것으로 보인다. (도)증보작력식에는 (규)증보작력식의 모든 내용과 함께 「칠요단목(七曜段目)」이 부록으로 부가되어 있고, 두주의 기록에서 현종 14년(1848년)의 설명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Table 1에 나타난 편제나 삼복 구하는 법[求三伏]의 할주로부터 간행본 (규)증보작력식이 (규)작력식, (칠)작력식, (추)작력식의 저본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²¹ 觀此曆式，可謂至矣，盡矣。一如此規，雖百世，可知矣。癸巳八月丁未。海平 尹斗壽。

²²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1592년) 4월 29일(무오).

²³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1592년) 5월 1일(경신).

²⁴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1592년) 5월 3일(임술), 『선조수정실록』 권 26, 선조 25년(1592년) 5월 1일(경신).

²⁵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1592년) 6월 2일(경인), 『선조수정실록』 권 26, 선조 25년(1592년) 6월 1일(기축).

Table 4. The distribution of the day number between *Haji* (Summer Solstice) and *Ipchu* (Enthronement of Autumn) during the period of 1900 - 2100.

Case (Day No.)	Date		No. of Year (Ratio)
	<i>Haji</i>	<i>Ipchu</i>	
Case I (47 days)	Jun. 20	Aug. 6	7
	Jun. 21	Aug. 7	91
	Jun. 22	Aug. 8	74
	Jun. 23	Aug. 9	1
Sub-total			173 (83.1%)
Case II (48 days)	Jun. 20	Aug. 7	8
	Jun. 21	Aug. 8	17
	Jun. 22	Aug. 9	3
Sub-total			28 (13.9%)
Total			201 (100%)

5.2. 월복률

초복과 중복의 간격은 10일 차이를 가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복과 말복 사이가 10일이면 평복이고, 20일이면 월복이라고 한다. 삼복에서 월복이 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 월복률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의 삼복 중에서 월복이 차지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Lee(1985)에 따르면, ‘하지 전 1, 2, 3일(하지일 제외)이 각각 경일이거나 입추일, 그 다음날, 그 다음다음날이 각각 경일일 때는 월복하는 일이 없고, 그 밖의 경우는 모두 월복한다’고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만세력』을 이용하여 1900년 - 2100년까지 201년 동안의 하지 - 입추 기간의 일수 분포를 조사하였다(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2004). 이 기간 동안 하지는 6월 20일 - 21일에서 22일 - 23일로 변화하였고, 입추는 8월 6일 - 7일에서 8일 - 9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하지 - 입추 기간의 일수는 47일과 48일인데, 그 비율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5는 하지에서 입추까지의 일자 간격이 47일인 경우에 대해, Table 6은 하지에서 입추까지 48일인 경우에 대해 평복과 월복의 경우 수를 각각 조사하였다. Table 5와 Table 6에서 일진의 천간 중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평복이고 나머지가 월복이다. 조사 결과 Table 5의 경우는 Lee(1985)의 설명과 일치하지만, Table 6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와 Table 6을 보면 월복이 평복보다 많다. 하지에서 입추까지의 길이가 47일인 경우에는 월복률이 70%이고, 48일인 경우에는 80%이다. 따라서, 1900년 - 2100년까지 하지 - 입추 기간의 일수와 오늘날 삼복 결

Table 5. Duration between *Jungbok* (Middle Hot Day) and *Malbok* (Late Hot Day) in Case I of Table 4.

Heavenly Stems										
<i>Haji</i>	7th	6th	5th	4th	3rd	2nd	1st	10th	9th	8th
<i>Ipchu</i>	4th	3rd	2nd	1st	10th	9th	8th	7th	6th	5th
Date										
<i>Jungbok</i> (Jul.)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i>Malbok</i> (Oct.)	10	11	12	13	14	15	16	07	08	09
Duration	20	20	20	20	20	20	20	10	10	10

Table 6. Duration between *Jungbok* (Middle Hot Day) and *Malbok* (Late Hot Day) in Case II of Table 4.

Heavenly Stems										
<i>Haji</i>	7th	6th	5th	4th	3rd	2nd	1st	10th	9th	8th
<i>Ipchu</i>	5th	4th	3rd	2nd	1st	10th	9th	8th	7th	6th
Date										
<i>Jungbok</i> (Jul.)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i>Malbok</i> (Oct.)	10	11	12	13	14	15	16	17	08	09
Duration	20	20	20	20	20	20	20	20	10	10

정법을 이용한 월복률은 대략 $71.39\% (= 0.7 \times 86.07\% + 0.8 \times 13.93\%)$ 가 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세조 3년(1547년)에서 숙종 38년(1712년) 동안의 삼복 결정법에 따라 Table 6의 통계를 적용하여 월복률을 구하면 약 71.39%가 나오고, 영조 19년(1743년)에서 순조 27년(1827년) [혹은 고종 4년(1867년)] 동안의 월복률은 76.39%로 계산된다.

6. 결론

조선시대에는 이사(二社), 한식(寒食), 삼복, 납(臘), 토왕용사(土王用事)의 다섯 가지 대표적인 절일이 있었다. 이 절일은 망, 합삭, 상현, 하현 등과 더불어 당시의 역서에 기록되었고, 현대에도 한식(寒食), 삼복, 토왕용사가 역서나 달력에 남아 민간에서 좋은 풍속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그 중 삼복은 춘추시대(BCE 770 - BCE 221) 즈음부터 전해 내려오는 동아시아의 잡절로 초복, 중복, 말복으로 이어지는 혹서의 시기이다. 이 삼복의 기간은 20일 또는 30일이다.

삼복을 결정하는 방법은 하지 후 제3 경일이 초복이고, 제4 경일이 중복이며, 입추 후 제1 경일이 말복이다. 보통 두 복일 사이의 간격은 10일 차이를 가지지만, 중복과 말복은 절기의 기준이 달라 20일 차이가 나는 월복이 자주 발생한다.

하지가 경일인 날에 초복을 결정하거나 입추가 경일인 날의 말복을 결정하는 방법은 조선 500여 년 동안 변화해왔다.

하지가 경일인 경우는 하지로부터 4 경일의 수(하지 후 제3 경일)를 초복으로 하는 방법이 조선 초기에 정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역서 상으로는 숙종 38년(1712년)부터는 하지가 경일이면 하지로부터 3 경일의 수를 초복으로 하였고, 이는 규장각의 『증보작력식』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증보작력식』에 기록된 ‘삼복 구하는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후로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하지경일이면 하지로부터 3 경일의 수를 초복으로 결정하고 있다.

세조 3년(1457년)부터는 입추가 경일이면 다음 경일이 말복이었다. 경종 2년(1722년)부터 입추가 경일일 때 오전경일이면 그 날(입추로부터 1 경일의 수)이 말복이고, 오후경일이면 다음 경일(입추로부터 2 경일의 수)이 말복이 되었다. 규장각의 『증보작력식』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증보작력식』에 남아있는 ‘삼복을 구하는 법’은 늦어도 경종 2년(1722년) 이후의 방법을 기록한 것이다. 약 120년 뒤인 현종 12년(1846년) [또는 늦어도 고종 4년(1867년)]부터는 오전경일이나 오후경일에 관계없이 입추가 경일이면 그 날을 말복으로 하였고, 이러한 말복 결정방법이 원칙이 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작력식』의 저본은 1593년 8월에 간행된 『역식』으로 추정된다. 이는 임진왜란 중에 긴급히 역서를 만들거나 그 만드는 법을 보존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작력식』류 중 현존하는 최고본은 규장각의 『증보작력식』으로 보이는데, 이 책의 간행연도는 영조 46년(1770년)까지로 추정할 수 있다.

오늘날 ‘삼복 구하는 법’에 의해 월복이 나타나는 비율을 구하면 약 71.39%로 30일의 삼복기간이 20일의 삼복기간보다 약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오늘날 삼복의 결정법은 『작력식』의 변천을 이어받아 관습적으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음력 역법에서의 잡절의 규정을 만드는 데 역사적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를 위해 귀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도서관 관계자 및 개인 소장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기원은 2013년 정부(교육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받아서 연구를 수행 하였습니다(2013R1A1A2013747).

REFERENCES

- Korean Ment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Old Literature Collection Vol. 18, Yueseong Press (Seongnam), pp.662-666
- Ahn, Y. S., Han, B. S., Sim K. J., & Song, D. J., 2009, Arrangement of Chronological Tables on Joseon Dynasty (조선시대 연력표),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Paju), p.81
- Choi, S. G., 2003, Collection of Materials for Korean Seasonal Customs - Three Kingdom Period-Goryeo Period,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국립민속박물관), Graphic siseon (Seoul), pp.229-236
- Han, B. S., 2001, Arrangement of Chronological Tables on Korea (Vol. II) [한국연력대전 (하)], Yeungnam University Press (Gyeongsan), pp.1457-1593
- Hu, Y. S., 2000,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Works of the Astronomical Section of Gwan-sang-gam in the Late Chosŏn Dynasty - Focusing on the period since the late 18th century, Msc.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Jeong, S. M., 2007, Almanac of Seasonal Customs of Joseon III,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Minsokwon (Seoul), pp.89-240
- Kim, J. T., 2002, A Look at the *Kyeongjinyeon Daetongryeok*, The Review of Folk Life and Culture, 7, 69
-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한국천문연구원), 2004, *Manseryeok* (Ten-Thousand-Year Almanacs, 한국천문대 만세력), Myeongmundang (Seoul), pp.20-413
-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2011, Korean Astronomical Almanac for the Year 2012, Namsandang (Seoul), p.212
- Lee, E. S., 1985, Fundamental Analysis of the Astronomical Calendar (역법의 원리분석), Jeongeumsa (Seoul), p.37
- Lee, C. H. & Choi, S. G., 2003, Almanac of Seasonal Customs of Joseon I,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Minsokwon (Seoul), pp. 54-347
- Lee, K. -W., Ahn, Y. S., Mihn, B. -H., & Lim, Y. -R., 2009, Study on the Period of the Use of *Datong-li* in Korea, JASS, 27, 1
- Lee, K. -W., Ahn, Y. S., Mihn, B. H., & Shin, J. S., 2011, Database Construction and Textual Analysis of Korean Astronomical Almanacs, PKAS, 26, 1

Lee K. -W., Ahn, Y. S., & Mihn, B. -H., 2012,
Verification of the Calendar Days of the Joseon
Dynasty, JKAS, 39, 1125

부 록

A1. 하지경일 또는 입추경일의 주기

하지경일과 입추경일인 해에서 보이는 주기성을 이해하기 위해, 입추가 경일인 해의 주기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입추는 24기 중의 하나로서 1년(365.2422일)의 주기를 갖는다. 반면 경일(庚日)은 일진(日辰) 중에 천간(天干)이 경(庚)이 들어간 날로 10일마다 나타난다. 하지경일 또는 입추경일의 주기를 계산하기 위해 회귀년과 천간의 공배수를 얻어야 한다. 회귀년을 10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frac{1 \text{ 회귀년}}{\text{천간의 수}} = \frac{365.2422\text{일}}{10} = 36.52422\text{일}$$

여기서 정수 36은 1년 동안 반복된 천간의 회수를 의미한다. 다시 표현하면 365.2422일에서 360일은 천간이 반복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5.2422일을 10으로 나눈 값이 주기를 구하는데 필요하다. 0.52422일을 번분수로 표현하면

$$0.52422 = \frac{1}{1 + \frac{1}{1 + \frac{1}{9 + \frac{1}{1 + \frac{1}{4 + \frac{1}{1 + \frac{1}{1 + \frac{1}{1 + \dots}}}}}}}}$$

로 주어지며, 이를 연분수로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0.52422 = \frac{1}{1} + \frac{1}{1} + \frac{1}{9} + \frac{1}{1} + \frac{1}{4} + \frac{1}{1} + \frac{1}{1} + \frac{1}{1} + \dots$$

위 연분수의 매 항까지의 합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2항까지의 합: $\frac{1}{2} = 0.5$
- 3항까지의 합: $\frac{10}{19} = 0.526315789$
- 4항까지의 합: $\frac{11}{21} = 0.523809524$
- 5항까지의 합: $\frac{54}{103} = 0.524271845$
- 6항까지의 합: $\frac{65}{124} = 0.524193548$

- 7항까지의 합: $\frac{119}{227} = 0.524229075$

각 항의 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2항: $5.2422 \times 2(\text{년}) = 10.4844 = 10 \times 1(\text{회}) + 0.4844$
- 3항: $5.2422 \times 19(\text{년}) = 99.6018 = 10 \times 10(\text{회}) - 0.3982$
- 4항: $5.2422 \times 21(\text{년}) = 110.0862 = 10 \times 11(\text{회}) + 0.0862$
- 5항: $5.2422 \times 103(\text{년}) = 539.9466 = 10 \times 54(\text{회}) - 0.0534$
- 6항: $5.2422 \times 124(\text{년}) = 650.0328 = 10 \times 65(\text{회}) + 0.0328$
- 7항: $5.2422 \times 227(\text{년}) = 1189.9794 = 10 \times 119(\text{회}) - 0.0206$

위 식의 우변 마지막 항을 24시각 또는 12시진(時辰)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2항의 +0.4844(일) = +11.63(시) = +5.81(시진)
- 3항의 -0.3982(일) = -9.56(시) = -4.78(시진)
- 4항의 +0.0862(일) = +2.07(시) = +1.03(시진)
- 5항의 -0.0534(일) = -1.28(시) = -0.64(시진)
- 6항의 +0.0328(일) = +0.79(시) = +0.39(시진)
- 7항의 -0.0206(일) = -0.49(시) = -0.25(시진)

이는 근사적으로 2년, 19년, 21년, 103년, 124년, 227년마다 천간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입추가 경일인 어떤 해를 기준으로 2년, 19년, 21년(2년 + 19년), 103년, 124년(= 21년 + 103년), 227년(= 103년 + 124년) 등이 되는 해도 입추가 경일이 된다. 이 주기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Figure A1과 같다.

2년, 19년, 21년 주기는 (원년 - 2년) 쌍과 19년 뒤인 (19년 - 21년) 쌍의 주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년 후에는 입절시각 차이가 약 +5.8시진이 되며, 따라서 0년의 입절시각이 오전이면, 2년 후에는 오후가 된다. 그러나 19년 주기의 경우에는 약 -4.78시진이 되며, 실제로는 2년 + 19년(이후 '(2 + 19)의 쌍주기')의, 다시 말해서 21년 이후의 입절시각과 비슷하게 된다. 즉 어떤 해의 입절시각이 오전(오후)이면 21년 후에도 오전(오후)이 된다. 또한 (원년 - 2년) 묶음이 원년으로부터 21년 후에 (21년 - 23년)의 묶음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입추가 경일인 해는 (원년→2년)→(19년→2년)→(19년→2년)→(19년→2년)의 식으로 반복되게 된다.

한편 103년, 124년, 227년의 주기를 분석해 보면, (원년 - 2년) 쌍주기가 원년으로부터 19년 후인 (19년 - 21년) 쌍주기로 발생하기도 한다(이후 '(2 + 17)의 쌍주기').

- $103 = 0 + (2+17) + (2+19) + (2+19) + (2+19) +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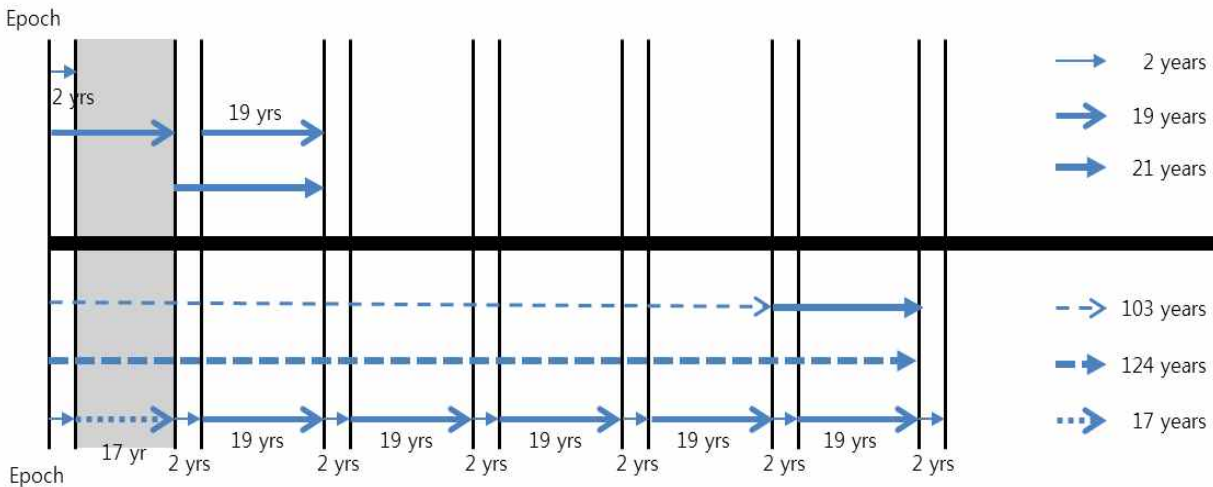


Figure A1. Occurrence cycle of years when *Haji* (Summer Solstice) or *Ipchu* (Enthronement of Autumn) is the day starting with the seventh Heavenly Stem in *Ilji*.

- $124 = 0 + (2 + 17) + (2 + 19) + (2 + 19) + (2 + 19) + (2 + 19) + (2 + 19)$
- $227 = 0 + (2 + 17) + (2 + 19) + (2 + 19) + (2 + 19) + (2 + 19) + (2 + 19) + (2 + 19) + (2 + 19) + (2 + 19) + (2 + 17)$

위의 등식에서 괄호는 쌍주기를 의미하는데, ‘(2 + 19)의 쌍주기’가 원년(0년) 이후 (21년 - 23년) 쌍주기에 해당하고, ‘(2 + 17)의 쌍주기’가 원년 이후 (19년 - 21년) 쌍주기를 나타낸다. 103년 주기는 5번의 쌍주기 중에 ‘(2 + 17) 쌍주기’가 1차례 있고, 124년 주기는 6번의 쌍주기 중 역시 ‘(2 + 17)의 쌍주기’가 1차례 있다. 또한 227년 주기에서는 11번의 쌍주기 중 ‘(2 + 17) 쌍주기’가 2차례 있다. ‘(2 + 17) 쌍주기’는 최소 5번 만에 최대 10번 만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계산에 의하면 ‘(2 + 17) 쌍주기’의 경우, 2년째 입추(오후경일)의 입절시각은 주로 해정(亥正) - 자초(子初), 즉 22시 - 24시에 해당하고, 17년째 입추(오전경일)의 입절시각은 자정(子正) - 축정(丑正), 즉 0시 - 3시에 해당한다.

2년 주기에서 절입시각의 차이가 $+0.4844(\text{일}) = +11.63(\text{시})$ (약 11시 38분) = $+5.81(\text{시진})$ 이다. 만약 하지경일의 원년의 절입시각이 12시 00분 = 오정초각 (6.00시진) 전후 이면, 원년 후 2년과 원년 전 2년에도 하지경일이 올 수 있다.

Table A1은 Table 2의 하지경일인 해의 서기연수를 정리한 것이고, Table A2는 Table 3의 입추경일인 해의 서기연수를 정리한 표이다. Table A1과 Table A2에서 행단위로 서기연수를 비교해 보면 하지경일 또는 입추경일인 해의 103년 주기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일례로 1654년 대통력에서 시헌력 개력된 영향이 1600년

대와 1700년대 사이에서의 103년 주기가 어긋나게 하고 있다. 하지경일이 2년 주기로 연속 2회 발생하는데, Table A1에서는 1750년-1752년-1754년과 2019년-2021년-2013년이 있고, Table A2의 입추경일에서는 1457년-1459년-1461년이 있었다.

A2. 삼복의 세시풍속

Choi(2003), Lee & Choi(2003)과 Jeong(2007)에는 사회풍속을 기록한 조선후기의 다양한 세시기를 소개하고 있다. 유득공(柳得恭, 1748년 - 1807년)의 『경도잡지(京都雜志)』, 김매순(金邁淳, 1776년 - 1840년)의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 홍석모(洪錫謨, 1781년 - 1857년)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조운종(趙雲從, 1783년 - 1820년)의 『세시기속(歲時記俗)』, 권용정(權用正, 1801년 - ?)의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 조수삼(趙秀三, 1762년 - 1849년)의 『세시기(歲時記)』, 최영년(崔永年, 1856년 - 1935년)의 『해동죽지(海東竹枝)』, 그밖에 이색(李穡, 1328년 - 1396년)의 『목은선생집(牧隱先生集)』에는 삼복의 세시풍속이 기술되어 있다.

복(伏)은 음양오행적으로 ‘더위에 굴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세시기속(歲時記俗)』 「면암집(勉庵集)」에는 ‘경금(庚金)의 기운이 화(火)의 기운을 만나 굴복했으니 이때를 복날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최남선(崔南善, 1890년 - 1957년)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는 ‘더운 기운[火]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金]을 제압하여 굴복시켰다’고 해석하고 있다(Lee & Choi, 2003).

삼복은 여름 중 매우 더운 시기이므로 충재, 곧 전염병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관습적 행위가 세시풍속으로 전해져왔다. 즉 삼복의 음양오행적인 해석과 결부되어,

Table A1. Summary of the year when *Haji* (Summer Solstice) is the day starting with the seventh Heavenly Stem in *Iljin*.

B C A	Year = A + C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300										99,
1400	01	20,22	41,43	60,62	81,83					
1500	02,04	23,25	44,46	63,65	84,86					
1600	05,07	26,28	47,49	68,70	89,91					
1700	10,12	31,33	50,52,54	71,73	92,94					
1800	13,15	34,36	55,57	76,78	95,97					
1900	16,18	37,39	58,60	79,81						
2000	00,02	19,21,23	40,42	61,63	82,84					

A: century, B: decade, C: year of decade

Table A2. Summary of the year when *Ipchu* (Enthronement of Autumn) is the day starting with the seventh Heavenly Stem in *Iljin*.

B C A	Year = A + C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300										96,98
1400		17,19	38,40	57,59,61	78,80	99,				
1500	01	20,22	41,43	62,64	81,83					
1600	02,04	23,25	44,46	59,61	80,82					
1700	01,03	22,24	43,45	62,64	83,85					
1800	04,06	25,27	46,48	67,69	86,88					
1900	07,09	28,30	49,51	70,72	91,93					
2000	12,14	31,33	52,54	73,75	96,94					

A: century, B: decade, C: year of decade

더위를 피하고 보양식을 먹음으로서 건강을 보충하는 풍속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보양식은 개장국과 팔죽이었다.

가. 개장국

개장국은 구장(狗醬), 구갱(狗羹), 구학(狗臠)이라고도 하였다.

- 『경도잡지(京都雜志)』 : 개고기를 삶을 때 파뿌리를 같이 넣으며 닭고기나 죽순을 추가하면 맛이 더 좋아지는데, 이것을 개장(狗醬)이라고 한다(Jeong, 2007).
-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 개를 삶아 국을 해먹는 것은 양기를 돕기 위한 것이다 (Jeong, 2007).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개고기를 파와 함께 푹 삶은 것을 개장(狗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닭고기와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또 개장국을 만들어서 산초가루를 치고 흰밥을 말면 시절 음식이 된다. ... 저자 거리에서도 이것을 많이 판다(Jeong, 2007).
-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 : 삼복에는 개장국이나 팔죽을 먹으니 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Lee & Choi, 2003).
- 『세시기속』 「면암집」 : 복날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 개를 삶아 국을 만들어 먹었으며, 중복(中伏)이나 말복에도 마찬가지로(Lee & Choi, 2003).
- 『세시기(歲時記)』 「추재집(秋濟集)」 : 삼복의 풍속은 유두날과 같이 척양(滌腸)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닭을 잡고, 개를 삶아서 시냇가에서 목욕하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노래한다(Lee & Choi, 2003)..

- 『해동죽지(海東竹枝)』 : ‘복날 개장국을 먹으니 이를 복놀이이라고 한다(Lee & Choi, 2003).

나. 팔죽

팔죽은 두죽(豆粥), 적두죽(赤豆粥)이라고 하였다.

- 이색(李穡, 1328년 - 1396년)의 『목은선생집(牧隱先生集)』 : ‘푸른 사발의 팔죽에 벌꿀을 타서 마시니, 바로 서늘한 기운이 살 속에 스며드는 듯 했네’(Choi, 2003).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붉은 팔죽으로 죽을 쑤어 먹는데 삼복에 다 그렇게 한다 (Jeong, 2007).
- 『열양세시기』 : 팔죽을 쑤는 것은 여역 귀신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Jeong, 2007).

팔죽은 벽사(辟邪)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유행병을 막는 벽사(辟邪)의 속신(俗信)으로, 삼복에는 개를 잡아 문에 매달기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개를 잡아 그 피를 문 앞에 뿌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 장티푸스 병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고, 황해도에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1월 15일 개를 잡아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벽에 바른다고 하였다(Lee & Choi, 2003).